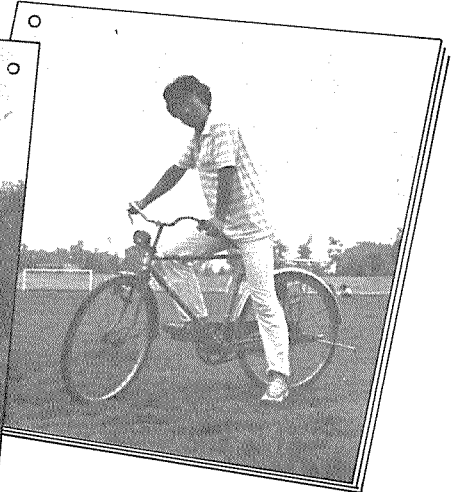




## 마음의 평정이 건강의 으뜸



아빠 : 이재진, 엄마 : 홍영순. 아들 : 이호용, 이보용

희망찬 1987년.

정묘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삶을 위해 발돋움 하는곳. 그리고 사랑이 가득찬. 명일동 주공 9차 APT, 912동 1402호를 찾았다.

그곳에서 이재진(48才 : 사업) 씨와 부인 홍영순(46才 : 주부) 씨. 장남 이호용(22才 : 고려대학 사회학과 3년) 군과, 차남 이보용(19才 : 시립대학 경제학과 1년) 군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가정을 방문한 기자의 첫인상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 어우러지고, 젊음과 패기로서 뚝뚝 뭉친, 활기찬 가정의 참모습을 보는듯 했다.

신년 새해의 계획을 장남 이용호군에게 물었다.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재산은 “시간”이기에 20대의 젊은 시절은 도전의식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정열과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4년의 마지막 남은 1년은 책속에 묻혀 보내고 싶어요. “공부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하는것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젊은기상과 함께 학구파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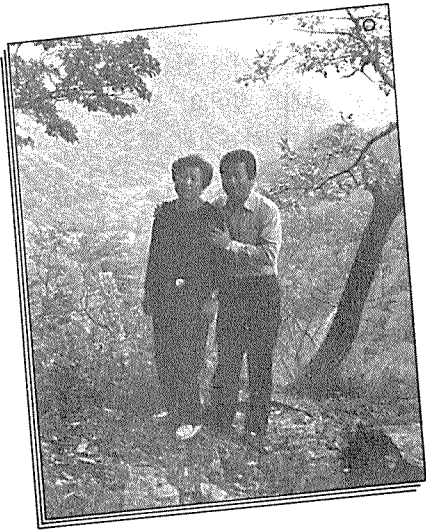
-형님보다 아우가 더 건강한 체격을 갖고 있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항상 제때에 식사를 하며 충분한 휴식과 건전한 정신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학생活的 느낌과 앞으로의 각오는 어떠한지요

“간단히 말해서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 아름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가지의 목표를 가지고서 확실한 신념과 믿음으로써 매사의 일을 적극적

확실한 신념과  
믿음으로 한가지  
목표아래 모든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으로 추진해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한다.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이 항상 머물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이나 행복한 생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식구가 많은 시간을 성당에서 보내고 있어요. 호용이는 학생회장으로, 보용이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삶의 보람이나 의미를 찾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부인의 모습에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임을 알 수

었다.

“마음의 평정”이 건강의 으뜸이라고 생각한다는 부인께서는 늦게 취미 삼아 배운 꽃꽂이를 통해 집안의 분위기를 살리도록 많은 애를 쓰며, 꽃의 조화속에서 심오한 환상을 느껴볼 수 있단다.

한편 남편인 이재진씨는 “항상 새벽 5시면 기상해서 앞산으로 등산을 하면서, 약수물을 떠오고 있어요. 새벽공기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무척이나 좋습니다. 꼭 실천 한번 해보세요”라며 적극 권장하였다.

단출한 네식구가 서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집안의 평화로움과 따뜻함에서 오는 것인가 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은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이 밑바침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앞으로 이가정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는 기자의 발걸음은, 자신있게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다.

(이혜진 글)

■ 사회정화 표어

분수지킨 연말연시 희망에 찬 새해살림

• 한국건강관리협회